

##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현직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에 관한 인식과 요구\*

###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among Current School Teachers Volunteering as Sunday School Instructors

김기흥 (Ki Heung Kim)\*\*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ix research participants who are current school teachers and Sunday school teachers at a church located in Busan to find out their basic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7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subjects' basic perception of Sunday school, and 2 categories and 6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subjects' demands for church Sunday schoo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wo majo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church Sunday school educa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hristian school teachers as Sunday school teachers is necessary.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the church's Sunday school, the senior pastor's active pastoral philosophy toward Sunday school and the cultivation of the pedagogical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Sunday school assistant pastors seem to be very important factors.

**Key words:** Sunday school, Sunday school teacher, church, school teacher

\* 2023년 11월 8일 접수, 12월 2일 최종수정, 12월 4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일학교는 복음사업의 일환으로 주일에 유·초·중·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조직된 개신교회의 교육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886년 아펜젤러(Appenzeller)에 의한 미 감리교 한국 선교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 교육과 의료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당시 주일학교 학생(Sunday-Scholars)이 12명이었고, 아펜젤러의 집에서 모였다. 또한 영어로 3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성경과 교리문답, 십계명 및 주기도문 등이 주 교재였다(장종철, 1999: 44-46).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일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계기는 먼저 1905년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회의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 결성과 주일학교위원회 조직되면서였다. 이어서 1910년대와 20년대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주일학교연합 운동이나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세계주일학교협회 등의 협력과 도움을 통하여 주일학교가 재차 부흥하게 되었다. 이후 일제시대 주일학교 운동은 신사참배 강요 등의 식민정책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으로 시련을 겪었지만, 해방 후 1947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재건, 1948년에는 이는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로 개칭되면서 주일학교운동을 넘어 기독교교육 전반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교단 간의 분열과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종교다원주의 등의 내외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연합기관으로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고 교단별로 공과 교재나 교사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1960년대 이후 기독교교육은 교단의 진보 및 보수 등의 이념에 따라서 전통적인 성경적 가치관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박용규, 2022: 78-82).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 시간에 빠른 성장을 기록했지만, 오늘날 교회의 양적성장 둔화와 더불어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 급감소식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장화선, 2015: 259-263 ; 전병철, 2016: 143-144 ; 조철현, 2017: 157-158). 이러한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쇠퇴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를 비롯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종교에 대한 무관심, 반기독교적인 세속문화의 등장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특히 주일학교의 성장을 위협하는 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는 내적 요인으로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의 무관심이나 교육철학의 부재, 교회 교사의 사명감 및 전문성 결핍, 부모의 인식과 연계적인 신앙교육 부재, 교회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미비 등 매우 복잡적이며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장화선,

2015: 270-273 ; 함영주 외, 2015: 3-7 ; 전병철, 2016: 170-172).

이처럼 우리나라 교회와 함께 주일학교의 심각한 침체 현상의 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인 강조점은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강용원, 이현철, 2010: 114 ; 함영주 외, 2015: 2 ; 함영주, 2016: 46-50 ; 조철현, 2017: 157-160 ; 이성복, 2019: 419-421 ; 박미화 외, 2019: 71-72).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전통적인 격언이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수업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은 교육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나 기능은 일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성경 및 신앙교육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본다. 즉 주일학교 교사의 준비성은 주일학교의 부흥과 발전뿐 아니라 미래 교회를 이어 나갈 신앙의 계승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교회는 주일 학교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 일정한 자질이나 준비가 되기 전에 단지 ‘열심’이나 ‘열정’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일(교회)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자질을 살펴보면, 홍종근(2002: 175-176)은 전문성(기독교 교육 이론 및 방법, 성과와 학생 이해 등), 영성(기도, 말씀, 예배생활 등), 교사됨(소명감, 헌신, 인격 등)을 꼽고 있다. 이어서 박상진(2007: 46-58)은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역량인 영성을 중요하게 보기도 했다. 또 강용원, 이현철(2010)은 영성, 교수방법, 학생생활지도, 문화적응력 및 행정능력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한편 신현광(2012)은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영성, 인성, 체계적인 교수내용과 방법, 기술과 태도에 대한 지식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공통적인 역량은 크게 전문성(교육학이나 성경적 지식, 정보, 기술 등), 영성(기도, 예배 등) 및 인성(성품, 인격 등)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사의 인식이나 역량 등을 다룬 선행연구는 연구방법 면에서 절대 다수가 양적 연구였다. 특히 연구대상에서도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의 학력이나 직종 등 일반적 배경에서도 매우 혼합적이고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초기 주일학교 역사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반을 조직하여 교육학, 아동심리학, 교수 방법 등 근대 교육학을 기초로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주일학교 교사들은 계속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학적 지식과 기능을 응용하면서 성경과 신앙교육을 하였던 것이다(이윤진, 2008: 115-116).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주일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단일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동시에 일반 학교(초·중등)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의미 있고 빈번하게 지적된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과 역량 측면에서 볼 때 현직 학교 교사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연구 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은 주일학교의 개선과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 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반 학교에 재직 중이면서 동시에 주일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주일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현재 일반 학교에 재직 중이면서 동시에 주일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주일 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부산 소재 H교회(예장 합동측, 교인 800여명, 주일학교 학생 300여명/교사 100여명)와 S교회(예장 고신측, 교인 2,000여명, 주일학교 학생 340여명/교사 110여명) 소속이며 일반학교에 재직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6명이다. 이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이 성별로는 대부분 여성, 연령 평균 48세, 주일학교 교사경력 평균 16년, 현재 재직 학교는 초등과정 2명과 중등과정 4명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처리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      | 성별 | 연령<br>(세) | 교사 경력(년)   |            | 담당<br>과목 | 소속<br>교회 |
|------|----|-----------|------------|------------|----------|----------|
|      |    |           | 주일학교(봉사부서) | 일반학교(재직학교) |          |          |
| 교사 1 | 여  | 43        | 10(중학부)    | 20(중학교)    | 수학       | S교회      |
| 교사 2 | 남  | 43        | 14(초등부)    | 16(중학교)    | 기술       | H교회      |
| 교사 3 | 남  | 51        | 22(고등부)    | 22(고등학교)   | 지리       | S교회      |
| 교사 4 | 여  | 48        | 14(초등부)    | 21(중학교)    | 영어       | H교회      |
| 교사 5 | 여  | 47        | 6(초등부)     | 25(초등학교)   | -        | S교회      |
| 교사 6 | 여  | 54        | 30(초등부)    | 32(초등학교)   | -        | S교회      |

## 2. 면담 도구

본 연구는 주일학교 교사이며 현직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면담 질문지는 이윤진(2008: 161-177)의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 함영주 외(2015: 107-115)의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들의 인식 연구, 조철현(2017: 19-29)의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비면담 질문지는 관련 전공 교수 2명을 통해 타당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학교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한 후에 난해하거나 불분명한 문장, 용어 등에 대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반 구조화된 면담지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위한 질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Content of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partial example)

| Example detailed question content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기초 배경 관련 사항(예, 성별, 연령, 경력 등)</li> <li>•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는가?</li> <li>• 언제 주일학교교사로 보람을 느끼는가?</li> <li>• 주일학교에 학교교사로서 가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가?</li> <li>• 주일학교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li> <li>• 주일학교 교사로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li> </ul> |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4주에 걸쳐 개별심층면담과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조사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이 새로운 조사 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인 눈덩이 표본 추출(Snowball Sampling)방식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로서의 선정 기준은 첫째,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둘째, 현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현직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 셋째, 주일학교교사 및 현직 학교교사로 각각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여 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 등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은 이미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주제를 비롯하여 방법, 목적 등에 대해 공지를 하였다. 또 이들의 개인 신분과 정보의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개별 면담에 대한 동의를 거쳤다.

면담 일정이나 장소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녹음되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은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개별 심층 면담 시간은 총 465분이었으며, 연구 대상자 1인당 평균 약 76분으로 나타났다. 또 심층 면담 분량은 A4용지(글자크기 10, 글꼴 신명조, 줄 간격 160, 자간 -10 등)로 총 51쪽이었다. 전사본에는 면담일자, 면담 대상자의 개인별 아라비아 숫자 등이 병기되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면담대상자의 번호만 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면담 전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 분석 및 범주화하였다(이종승, 2009: 421-423). 먼저, 녹음된 개별면담 내용을 가능한 원본대로 전사 작업(transcription)을 실시한다. 이어서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별로 약호화(coding)단계를 거친다. 이때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유사한 단어나 문장에 대해 특정 주제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호화의 면밀한 반복 읽기, 분석 및 추론 등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추출하는 주제별 유목화 작업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시간을 최대한 제공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에 의한 연구내용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나 이 메일 등을 통하여 검토, 확인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이 완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관련 전공 교수 2인의 검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현직 학교교사이며 주일 학교에 봉사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은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 또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요구에서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perceptions and needs of research subjects

| 대 주제                  | 범주                  | 하위범주   |
|-----------------------|---------------------|--|
| •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 | • 내·외적 봉사동기         | • 자연스런 소명감<br>• 주변의 권유   |
|                       | • 뿌듯함/아쉬움의 마음       | • 성장/변화하는 학생<br>• 소극적 태도의 부모   |
|                       | • 학교 교사로서의 효능감 자각   | • 익숙한 수업<br>• 마음 읽고, 이해하기  |
|                       | • 열악한 인프라 (Infra)   | • 기본적 인식 결여<br>• 독립된 분반 공부실 부족   |
|                       | • 혼돈스런 교육관(教育觀)     | • 만만하게 여기는 주일학교<br>• 엇갈리는 시각들  |
|                       |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 | • 모범적 태도<br>• 교육적 역량   |
|                       | • 교사 지원 기피          | • 이미 소진(burn out)<br>• 소명 의식 부족  |
| •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요구 | • 교회적 차원의 인식과 지원    | • 담임 목회자의 확고한 교육적 비전<br>• 주일학교-현직 학교교사 간 소통/협력<br>• 부교역자의 교육학적 소양<br>• 교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                       | • 교회-가정의 연계 방안 강구   | • 부모의 관심과 협력<br>• 부모교육/참여 기회 제공  |

## 1. 연구 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

### (1) 내·외적 봉사 동기

#### ① 자연스런 소명감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봉사 동기에 대해서 먼저 교육자로서 자발적 소명감의 발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내가 보던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중등부로 오게 되었죠. 사실은… 오히려 저는 중등부가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항상 보던 아이니까…(연구 참여자, 1)

특별한 동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연구 참여자 4)

## ② 주변의 권유

이어서 현재 학교교사이자 주일학교 교사인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로 주일학교에 봉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를 찾던 중에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제 동기가 여기 초등부를 섬기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2)

제가 개척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개척교회 부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교육대학 생이니까,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냐? 그랬을 때 내 신앙도 좀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때부터 봉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쪽…(연구 참여자 6)

## (2) 뿌듯함/아쉬움의 마음

### ① 성장/변화하는 학생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꼽았다.

저는 아이들을 초등부를 섬기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진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리더로 섬기고, 믿음의 일군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고…(연구 참여자, 2)

제 작은 손길이나 격려나 이런 관심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저의 자그마한 헌신 때문에 학생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죠(연구 참여자, 3)

### ② 소극적 태도의 부모

한편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 등 소극적 태도에 대해 다소 서운한 마음을 예들러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좀 큰 교회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유선으로 통화할일은 많이 없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우연히 만나게 되면 가끔씩 감사하다는 말씀을...(연구 참여자, 3)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경우는 잘,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감사하다는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더 많잖아요? 특히 유치부나 유년부는 더 많은데, 처음에는 그게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내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는데...(연구 참여자, 4)

### (3) 학교교사로서의 효능감 자각

#### ① 익숙한 수업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현직 학교교사로서 이미 교수법 등에 익숙하여 이를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한 이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제가 현직교사니까 그렇지 않는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교사들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공과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때, 현직에 있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하고 교수법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교회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정리된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높고, 그래서 공과 공부에 질적 수준에서 조금은 평균보다는 그 이상으로 더 좋게 제공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3).

일단 애들 수준에 맞는 교수이론이라거나 그것을 다른 일반 집사님들보다는 교회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제가 어떤 도구를 좀 준비해가지고 학습 자료를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른 일반 집사님보다는 훨씬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연구 참여자, 6)

#### ② 마음 읽고, 이해하기

이어서 현직 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심리·정서적인 면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중재 활동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할 때, 다른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직교사가 아닌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분반공부 시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것을 좀 자제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연구 참여자, 1)

그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왔을 때, 좀 힘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현직 선생님들은 케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올해 다른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선생님은 대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현직 선생님이 아니시거든요. 현직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제가 현직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엄마들이 교사가 아닌 엄마들이 한 번씩 물어요. 이 아이가 어떠냐? 우리 애는 이런데 어떠냐?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연구 참여자, 5)

#### (4) 열악한 인프라(Infra)

##### ① 기본적 인식 결여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당국이 주일학교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 수준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저희 교사모임에서 아까처럼 책걸상 좌석문제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의자를 배치를 해서 요즘 아이들이 불편해 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반응을 나타내죠. 대부분…(연구 참여자, 2)

목사님의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주일학교도 있으니까, 이 주일학교를 위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전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어요.(연구 참여자, 5)

##### ② 독립된 분반 공부실 부족

본 연구 참여자들은 주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예배 후에 실시되는 분반 공부 시간에 독립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분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있음을 피력하였다.

확실히 분리된 공간에서 하시는 반을 보면,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시간도 보내시고, 아이들과 소통도 충분히 되고, 아이들이 충분히 듣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그룹이 같아하면 안 들리거든요. 제 목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 애들도 집중이 안 되고… 교실이나 공간 등 환경이 더 문제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연구 참여자, 2)

개별 조별 공간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한 공간에 한 5반 정도가 같이 하니깐 시끄러워서 적응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옆 반에서 떠들면…(연구 참여자, 6)

### (5) 혼돈스런 교육관(教育觀)

#### ① 만만하게 여기는 주일학교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실제로 주일학교 예배나 분반공부시간에 비협조적이고 매우 소극적 태도에 대해 많은 고충이 있음을 밝혔다.

…성경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시간에도 눈을 뜨고… 지금은 막 핸드폰 보고, 또 지각도 많이 하고… 조금은 쉽지가 않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들고… 학교에서는 사실 집중이나 관심이 성적이거나 이런 아이들을 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연구 참여자, 2)

교회 자체가 학교보다는 아이들이 규율이 더 풀어지다보니까,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기에 앉아 있는 아이를 여기로 옮기려고 하면, 애야, 여기로 좀 앉아! 하면, 그쪽에 앉으면 잘 안보이니까, 여기 앉아! 라고 하면, 학교는 거의 99%가 조용히 와서 앉는데, 교회에서는 '싫은데요, 여기가 더 좋은데요!' 안 오죠. 대부분… 학교에서는 안 그러는데(연구 참여자, 4)

#### ② 엇갈리는 시각들

교회 주일학교의 예배나 분반 공부 시간에 보이는 학생들의 방해 행동이나 수동적 태도에 대한 교사들, 특히 현직 학교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들의 간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회에서도 좀 엄격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학교 일을 대하는 제자

세랑, 교회 일은 조금 달랐던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강압적으로, 사실은 강압적으로 해도 되냐?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던 것 같기도하고... 제 자신이 제 안에 확신이 좀 없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 참여자, 2)

학생들에게는 입시 준비, 공부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뭐 일단 공부에 애들이 너무 지겨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성경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애들하고 가볍게 교제하고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애들한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적으로 많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적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성경 지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들어가면 이게 평생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연구 참여자, 3).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좀 힘들어 하는 것은 교사는 교사들이 볼 때에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무조건 이것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데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야, 좋은 게 좋다하고...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따끔하게 말을 하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애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들의 말문을 너무 닫히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교회가 의무적으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회를 이 애가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연구 참여자, 4)

## (6)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

### ① 모범적 태도

주일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생님이 지각을 자주하거나, 그래도 선생님이 좀 모범적으로 찬양할 때 하고, 이런 예배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이끌어 가고 모범되는 모습이 있으면 학생들도 따라 올 텐데, 지각을 자주 하고, 예배 시간에 폰을 자주 보고, 또 찬양도 소극적이고, 교사의 예배 태도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면 반 아이들은 숫자가 더 늘거나 애들이 반이 잘 꾸러지는데 좀 불성실하거나 게으른 반은 학생 수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연구 참여자, 3)

우리는 지금 6명이 있는데, 우리 팀에... 일부 팀은 공부는 하지 않고, 물론 아이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재로만 공과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 참 그렇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20분정도 하는 것도 안 하면, 집에서는 더더욱 안 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6)

## ② 교육적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주일학교의 짧은 공과 공부 시간(약 30분 이내)이나 다소 소란스런 공동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효율적인 분반 공부를 위해서는 각 반 교사들이 가진 자질과 능력 등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교도 설교지만, 이 공과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30분으로는 불가능, 부족해요. 총회에서 이 책자를 만들 때는 1시간 30분짜리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30분 안에 그 교재 내용을 다하기에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담임 선생님, 교회 선생님의 역량인거예요.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걸 완전 다 할 수가 없어요 공과 내용을, 그래서 교재 연구도 필히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연구 참여자, 5)

어떤 반은 교재 내용을 안 할 때도 있고, 중간에 단합회하러 나가버리고, 반마다 분반공부 내용이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그래도 다른 반이 일찍이 마치고 중간에 나가면, 분위기가 팍 깨지니까... 확실히 분리된 공간에서 하시는 반을 보면,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시간도 보내시고, 아이들과 소통도 충분히 되고, 아이들이 충분히 듣고...(연구 참여자, 2)

## (7) 교사 지원 기피

### ① 이미 소진(burn out)

현직 학교 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봉사에 소극적 현상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심신이 지쳐있음을 강조하였다.

교회 내 현직교사가 많이 있을텐데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는 감정 소모하는 것이 많아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면 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읽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요즘은 너무 많이 지치고...(연구 참여자, 4)

그런데 현직 선생님들이 교회에 봉사를 안 하려고 하세요. 주일학교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주일에 좀 쉬어야... 교회에 까지 와서 난 안 하련다. 힘들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직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세요.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연구 참여자, 5)

## ② 소명의식 부족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현직 학교 교사들이 내적 소명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교회에 현직 선생님이 많으신데 주일학교에 봉사를 안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명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분명히 보면 교대를 가거나 사범대를 갈 때 기도한바가 분명히 있을 건데, 막상 현직에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사의 길을 갔는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현직에 갔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연구 참여자, 3)

제가 갈등을 많이 느껴서 해마다 그만 둘까하다가 또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너의 천직이다 이렇게 하셔서 내가 계속했는데요.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연구 참여자, 6).

## 2. 연구 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요구

### (1) 교회적 차원의 인식과 지원

#### ① 담임 목사의 확고한 교육적 비전

현직에 있는 학교교사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바람에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비전 제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교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목사님의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주일학교도 있으니까, 이 주일학교를 위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전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어요... 교회에서 기독교사에 대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요... (연구 참여자, 5)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 자주 언급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선생님들 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참 중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연구 참여자, 6)

## ② 주일학교-현직 학교교사 간 소통/협력

아울러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의 교육기관인 주일학교의 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현직 학교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한 전반적인 운영에서 긴밀한 협력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교회에서 교사들을 좀 세워줘서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할 때 아이들 학부모 중에 현직 교사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으시냐? 조언할 것이 있으시냐? 등등 조금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하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다보면 현직교사들이 주일학교에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연구 참여자, 4)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부장집사님, 회계 집사님 등 임원들끼리만 의논을 하시고...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가 있더라도, 사전에 좀 의논을 해주면 좋은데, 그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연구 참여자, 6)

## ③ 부교역자의 교육학적 소양

이어서 본 연구에 참여한 현직 학교교사들은 주일학교를 직접 담당하는 부교역자들의 기초적인 교육학적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부목사님들도 교육사범계열을 전공했다면 좀 더 주일 학교를 세밀하게 조직하고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료 하나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주니까 애들이 그냥 즐기고, 이 주일학교가 어려운 게 신앙과 교육을 함께 요구 하는데, 목사님은 신앙이고 교사로 있는 사람은 사실 교육인데, 사실 이것이 조화가 쉽지 않는 것이... 서로 돕지 않으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목사님 바뀌고 그냥 기존 목사님, 장년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중고등반에 오시면, 교사는 너무 좋은데, 애들은 너무 지겹고 시계보고... 그래서 교역자 분들도 뭔가 조금 한 곳에서 오래하셔서,

그쪽에 특화된 것도 필요하고… 담당 목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줘야하는데, 본인도 사실은 아직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충분히 교육을 좀 하셔서, 아니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갖추면 교회가 교회학교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4)

#### ④ 교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끝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신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학적인 직무 역량도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교회에서 하는 교사연수는 가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앙적인 것 특강들이 많죠. 교육학적인 부분은 좀 적죠… 어쨌든 교회에 건의한다면 교사연수,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좀 많이 교회차원에서 좀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3).

저희 교회 교단에서 하는 연수는 갔는데, 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여름성경학교 울동을 배워서 오는 거죠. 그것도 한 10%만 배운 것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기도 싫고, 갔다 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연구 참여자, 4)

### (2) 교회-가정의 연계 방안 강구

#### ① 부모의 관심과 협력

본 연구에 참여한 현직 학교교사들은 부모들(특히 불신자 부모)이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님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셔서 아이 혼자만 오니까 집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아이, 저는 사실 이런 아이가 조금 더 많아서, 이 아이들은 일단 부모님하고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할 일은 거의 없고, 아이가 부모님에게 교회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자기만 몰래 오는 거죠. 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애가 어딜 가든지…(연구 참여자, 1).

저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학교에 던져놓고 알아서 키워주세요! 가 아니라,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특히 불신자 부모님들이 더 심하시죠. 믿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그 관심이라는 것이 뭐, 가정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예배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듣고 분반공부도 잘해라! 하고 가정에서 그것들이 교육이 되어서 연계가 좀될 수 있으면...(연구 참여자, 2)

## ② 부모교육/참여 기회 제공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의 주일학교 운영에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위해 부모교육 또는 주일 학교 예배에 초대하는 행사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불신자 가정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저도 저 나름으로는 결국에는 전달이 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먹이고 데리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보통 한 그룹에서 1-2명, 저희 반에도 지금 1명이 있고...(연구 참여자, 2)

부모님도 한 번씩 예배에 초대를 하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부모님들만 또 따로 모아서 말씀하 시기도 하고... 주일학교는 부모님의 영향도 커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자녀를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보다는 저는 오히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회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가정과 연계가 되어야 돼요(연구 참여자, 5)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일학교 교사이자 현직 학교교사로 재직 중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주일 학교에 대한 인식에서는 내·외적 봉사 동기를 비롯하여 뿌듯함과 아쉬움의 마음, 학교교사로서의 효능감 자각, 열악한 인프라, 혼돈스런 교육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 교사 지원 기피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일학교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요구에는 교회적 차원의 인식과 지원, 교회-가정의 연계 방안 강구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논의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회 내 현직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력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패는 사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라는 말이 오랫동안 회자될 정도로 교육에서 교사의 자질이나 역할은 결정적 요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사로서 주된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후세대에게 교과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능 및 기술 등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원만한 인격 등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인 생활지도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은 입장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전문적 자질(교과 지식, 교수법, 아동발달심리 등)과 인간적 자질(가치관 및 태도, 인성 및 품성 등)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교사는 봉사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사로서의 개인적 직무수행과 피교육자들의 교육적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쉽지 않다(이종재 외, 2003: 84 ; 서재복 외 2011: 18-19).

이 같은 측면에서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물론 일반 학교와는 교육 목적이나 교육의 장(場), 교육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사의 역할과 자질 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유사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즉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필요한 자질로는 학습자의 발달 심리를 비롯하여 교수내용과 교수방법 등의 전문성과 인성 및 영성을 꼽을 수 있다(신현광, 2012: 499 ; 박미화 외, 2019: 83, 87). 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교사의 삶과 신앙 지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유미, 2016: 75-77 ; 김성원, 2020: 438-444).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에서 대두되는 어려움 중에 특히 준비된 교사의 부족 등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사의 자질 문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다(강용원·이현철, 2010: 113-115 ; 김남일, 2019: 46 등). 특히 전국의 교회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이현철(2013: 253, 261-262)은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열정과 소명의식 속에서 봉사를 하지만, 성경적 지식, 교수법, 아동 심리 등 전문성 부족으로 자신감 상실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주일 학교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현직 학교교사들은 비교적 교육학적 소양과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 등 교회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들을 이미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은데,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에 교사로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학교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하는데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학교교육뿐 아니라 교회 학교의 발전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교회 내의 현직 학교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일학교의 양적, 질적 성장과 성숙은 무엇보다도 교회적 차원에서 담임 목회자나 담당 교역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협력적 지원 등의 환경 조성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이다. 최근 주일학교의 위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적인 비전 상실이나 각 교인의 소명감 결여 등 교회 내부적 원인이 더 크다 할 것이다(김정준, 2021: 17- 25).

이와 관련하여 함영주 외 (2015: 19-25)와 전병철(2016: 152-154)의 교회교육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회학교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담임 목회자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목회철학의 부재와 부교역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더군다나 교회의 교육정책 결정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담임 목회자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적 노력 여부는 교육적 사명 고취나 재정 투입 등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교육적 전문성이 부족한데다가 자주 바뀌는 부교역자들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음으로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철학, 내용, 방법 등의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김남일, 2019: 50).

또한 담임목회자가 설교 중에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간담회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특히 현직 학교 교사들에게 소명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함으로써 원활한 주일학교 교사 수급을 통하여 교회학교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장화선, 2015: 265-266, 270-271).

주일학교 혹은 교회학교는 ‘주일·교회’ + ‘학교’의 복합 명사형이다. 즉 이는 신학(신앙)적인 측면과 교육학(교육)적인 측면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과 운영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내 그리스도인 학교교사들 간에 상호 협력적 관계(Team ministry) 속에서 신학적, 성경적 가르침의 내용을 교육(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실시할 때부터 교육학적 지식을 주일학교교육 활동에 접목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윤진, 2008: 115). 이에 교회나 담임 목회자는 그리스도인 학교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은사를 주일학교에서도 소명감으로 승화시켜 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담임 목회자나 부교역자들이 차세대 교회교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 성인목회에만 관심이 머문다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는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 교회나 교단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와 관련하여, 먼저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두 교회의 주일학

교 교사이며 현직교사 6명이라는 소수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교회의 지역이나 교단 등의 경계를 확장하고 표본 수가 더 확대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중인 교회 내 현직 교사와 현직교사가 아닌 주일학교 교사들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도 의미가 있으리라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용원·이현철 (2010).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 전문성 저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 93-119.
- 김남일 (2019).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한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소고. **생명과 말씀**, 제23권, 46-76.
- 김성원 (2020). 유아 신앙 형성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한 유아 신앙. **신학과 실천**, 68, 411-449.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67, 11-44.
- 나유미 (2016). 영아부 예배를 통한 영아와 부모의 신앙변화. **기독교교육정보**, 50, 53-80.
- 박미화·하연희·권미량 (2019).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예장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1), 59-93.
- 박상진 (2007). **교사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박용규 (2022). 특별기고. 주일학교운동과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활동 1884-2015. **역사신학논총**, Jun. 30, 2022, 9-95.
- 서재복·권정숙·김양자·김태호·손충기·신봉섭·유평수·이석열·이호섭·한상훈 (2011). **교사교육론**. 서울: 태영출판사.
- 신현광 (2012). 교회목회에 있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477-514.
- 이성복 (2019). 주일학교 영유치부 교사의 핵심역량 강화에 관한 조사 연구. **칼빈論壇**, 39, 415-436.
- 이윤진 (2008).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 101- 118.
- 이종승 (2009).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재·정태범·권상혁·노종희·정진환·정영수·서정화·이군현 (2003).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철 (2013).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 **개혁논총**, 28, 247-279.
- 장종철 (1999). 한국 감리교회의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논총**, 5, 33-93.
- 장화선 (2015).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

신학, 75, 259-283.

전병철 (2016). 한국교회학교의 위기의 내적인 요인 심층 분석. **ACTS 신학저널** 30, 141-177.

조철현 (2017).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 헌신도, 만족도, 그리고 교사사역 인식에 대한 양적 연구: 장로교 K 교단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3, 157-181.

함영주·전병철·신승범·이현철·조철현 (2015).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 **성경과 신학**, 75, 1-33.

함영주 (2016). 고등학교 교사의 리더십 역량과 학생이해, 교수학습능력, 사역만족도의 상관성 연구. **성경과 신학**, 79, 27-56.

홍종근 (2002). **교회교육행정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현직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에 관한 인식과 요구

##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among Current School Teachers Volunteering as Sunday School Instructors

김기 흥 (부산교육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이며 현직 학교교사인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 아울러 연구대상자들의 교회주일학교에 대한 요구에서는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히 그리스도인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담임목회자의 주일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목회 철학과 더불어 주일학교 부교역자들의 교육학적 역량과 자질 함양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 교회, 학교교사